

###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26> 작곡가 안성현-나주, 시인 박기동-보성

나주 남평 면소재지에서 십분 거리에 지석강 유원지가 있다. 그 강의 표면은 수면에 온통 금빛의 모래를 흩뿌려 놓은 듯 명징하고 눈부시다. 비단잉어의 비늘 같은 잔물결 위로 투과되는 불빛은 황홀하고 신비롭다. 빛고을을 지난 영산강은 화순과 남평에서 내달려온 지석강과 몸을 섞는다. 지석강은 호남정맥의 계당산과 보성 노동과 화순 이양의 경계지점인 예재에서 발원한 물줄기로 영산강의 대표적인 지류다.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나주 남평이다. 지석강의 순우리말은 '드들강'이다. 일반에게 이곳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동요 '엄마야 누나야'의 배경 때문이다. 김소월의 시에 이 고장 출신 안성현이 곡을 붙인 것이다.



나주 남평은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 곡을 붙인 음악가 안성현의 텃자리이고, 보성 벌교는 민족의 노래로 알려진 '부용산'을 쓴 박기동 시인의 고향이다. 사진은 지석강(왼쪽)과 부용산.

## '들꽃같은 삶' 간데 없고... 강산만 푸르러 푸르러

강변 안쪽 솔밭에 시비가 세워져 있다. 엄마와 누나의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상은 강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2009년 4월에 나주시와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 등은 안씨의 고향인 남평읍 지석강 백사장에 노래비를 세웠다. 우리 민족의 광복을 희원했던 그의 뜻을 기리자는 의도였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언제 들어도 노래는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강변 솔밭에는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가 있다. 단아하고 수수한 노래비 위로 금모래 빛 햇살이 부사진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잎의 노래가 귀를 적신다. 안성현은 이곳 솔밭 백사장을 떠올리며 민족의 광복을 희원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안성현(1920~2006)의 인생은 유목의 삶이었다. 출생지는 남평이었지만 17세 때 부친을 따라 함경도 함흥으로 이주했다. 일본으로 유학해 동방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귀국해서는 광주사범학교와 전남여고 등에서 강의를 했다.

안성현은 무용가 최승희의 남편인 안막의 조카로도 알려져 있다. 안막은 당대 리얼리즘 문학 비평의 선구자로 최고의 인텔리였다. 아마도 가계에 흐르는 예술적 감성이 안성현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변혁의지를 갖게 했는지 모른다.

안성현 기념사업회와 안성현 노래연구회는 2012년부터 관내 학교 순회공연을 통해 안성현의 음악적 흔과 예술을 기리고 있다. '안성현 음악회'를 열어 나주 출신 천재 음악가의 삶을 조명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의도다.

나주에서 활동중인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은 안성현현대음악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5년 11월 나주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음악제에서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안성현 홀에서 열린 콘서트는 현대음악의 대명사 쇤베르크와 메시앙의 곡들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안성현은 나주가 낳은, 남도가 자랑하는 음악가다. 알려진 대로 그는 '엄마야 누나야', '내고향' 외에도 '부용산'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단 후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던



안성현

**'엄마야 누나야' 배경 나주 지석강 작곡가 안성현 기념비**  
**박기동 시에 곡 붙인 '부용산' 민족의 노래로 전해지는데**  
**보성 박기동 조명 소극적...부용산 입구 시비만 덩그러니**



지석강 백사장에 세워진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

민족의 노래 '부용산'은 벌교 출신 박시동 시인(1917~2004)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다.

벌교 부용산에는 박기동 시인의 '부용산(芙蓉山)' 시비가 있다. 지석강과 안성현 그리고 부용산과 박기동은 동일한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 안성현이 없는 지석강과 박기동이 없는 부용산은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아니 안성현 없는 박기동, 박기동 없는 안성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박기동 시인은 지난 2002년에 발간한 '부용산'에서 시 '부용산'



박기동

/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박기동 시인은 '부용산'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시"라고 했다. 한편으로 "아름다운 것이 그 아름다운 뜻을 피우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허탈감과 상념이 투영돼 있다고 했다. 여동생이 죽자 시인은 후일 '부용산'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는다. 그리고 이 시는 박시인이 목포 항도여중 재직 시 동료교사였던 안성현의 눈에 띄어 노래로 작곡된다.

이후 '부용산'은 당시 빨치산들과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들불처럼 번졌다. 박기동은 이 사실을 반세기 후 월선 지난 호수에서 알았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그는 불운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이역만리 먼 이국을 떠돌며 '부용산'을 부르며 오누이와 조국을 그리워했다.

벌교 부용산 오리길에 서 있는 시비는 들꽃처럼 수수하다. 가만히 부용산을 읊조려본다. 산속을 흘러간 노래는 어느 골짜기에 이름 없는 꽃으로 피어날까.

박 시인은 2000년 시비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반평생만에 벌교를 찾았다. 그는 "온종일 산을 헤맸지만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며 "한 떨기 들꽃이 피어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로 무상함을 달랬다. 돌아보면 모든 것은 그렇듯 무상한가 보다. 노 시인의 말처럼 간다는 말 한 마디 없이 홀연히 가버리는 게 우리네 살일지 모른다.

그러나 더 무상한 것은 보성 벌교가 낳은 위대한 서정시인 박기동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나 추모사업이 실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보성군 담당자는 "기억하기로 박기동 시인에 관한 문화행사나 추모사업을 개최한 적이 없고 자료도 없다"고 했다.

'민족의 노래'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부용산'의 시인 박기동은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 대규모 건물을 짓고 행사를 유지하는 것이 문화의 본질은 아니다. 사람이 곧 문화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용산을 내려오며 어느 시인과 그 시인의 친구였던 한 음악가를 생각한다. 이름 모를 새 소리는 깃가를 적셔오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보성군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